

# “자유·민주·정의의 4.19 정신 계승”..4월회, 66주년 기념식·문화상·장학금 수여식 개최

✎ 이남제 기자 | ⓒ 승인 2026.04.17 20:41

제66주년 4.19혁명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가 서울 광화문에서 열려



(사)4월회는 지난 14일 오후 3시부터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 및 제35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하고, 제27회 4.19문화상 시상식과 제17회 4.19장학금 수여식을 함께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권세준 사무처장의 사회로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정용상 회장의 기념사,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의 축사에 이어 청년대표의 선창으로 4월회 행동강령을 제창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행사 전반은 4.19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 계승하겠다는 취지 속에 엄숙

하게 진행됐다.

4.19문화상은 4.19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민주정신의 계승·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제27회 수상자로는 고 서명숙 (사)제주올레 이사장이 선정됐다.

고 서명숙 이사장은 총 27개 코스, 437km에 이르는 제주올레길을 조성해 국내 트레킹 문화 확산을 이끌고, 지역 공동체 회복과 평화·교류 문화 정착, 국민 통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4월회 측은 "삶 전체를 통해 4.19 정신을 실천하고 확장시킨 대표적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진행된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환일고등학교 권성대 학생을 비롯한 11명이 제17회 4.19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장학생은 4.19혁명 참여 학교 후배, 관련 단체 회원 자녀,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선발되며, 4월회 장학재단은 현재까지 약 200여 명(단체 포함)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4월회는 "이들 장학생들이 4.19 정신의 청년화·세계화를 이끌 미래 주역"이라며 "민주주의 가치의 확산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4.19혁명은 1960년 자유·민주정의를 기치로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민주화 운동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주권재민' 원칙을 실질적으로 확인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통성의 핵심 축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4월회는 1970년 '무명회'로 출발해 1991년 현재의 명칭으로 재창립된 순수 민간단체로, 4.19혁명 주역과 후대가 함께 참여해 그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초청 강연과 심포지엄, 문화상 시상, 장학사업, 국내외 역사·문화 탐방 등을 통해 민주시민 의식 함양과 역사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과거의 민주화 정신을 기리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의 시대 속에서 4.19정신을 어떻게 계승·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남제 기자** Inj215@hanmail.net